

#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  
 5街 134-5  
 電 話：923-4372

## 本會 全南道支部 임시총회 개최

— 活性化方案論議, 애로사항도 聽聞 —



崔奇泳 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本會 전남도지부는 지난 7.26(토) 10:00 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91 동지부 사무실에서 전남도 관내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부 업무活性化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회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등을 청문하였다. (관련기사 6면)

이날 會議에는 本會에서 韓榮錫 會長과 金漢泰 副會長 (全北道支部長) 이 참석하여 致辭와 激勵辭를 하여 주었으며 崔奇泳 支部長은 人事말을 통하여 그간 道支部의 業務가 여러가지 어려운 條件때문에 活性化되지 못하였던 점을 아쉬워하면서 오늘의 이 시점을 계기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굳은 결의를 表明하면서 그러기 위하여는 전체 회원이 一致團結의 參與精神이 要請된다고 하였다.

이어 韓榮錫 會長은 致辭를 통하여 韓國의 山林經營과 林業人의 姿勢에 대한 내용의 講演이 있었으며 金漢泰 副會長은 우리 山林經營人들이 大同團結하여 國家聖業인 山林建設의 봉사자로서 矜持를 가지고 各自 事業에 충실하자고 제창하였다.

# 國家山林經營과 農村振興

會長 韓 榮 錫

## 1. 山林의 認識

山林은 國民의 精神, 健康, 文化, 經濟 모든 것의 淵源의 生産始發과 結末을 지어 주는 것으로서 山林事業은 歷史의 創造事業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山林의 盛衰는 곧 國力의 盛衰를 가져온다.

山林이 民族과 國家를 浮沈시킨 歷史를 살펴보면 古代 바비로니아는 浮華放縱의 極致를 이룬 文化를 자랑하였으나 山林의 尊嚴性을 모르고 樹林을 남벌 황폐시켜 멸망되었다 하고, 그리스는 山林부실로 옛날의 榮光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東北阿 에치오피아 등 여러나라들은 侵略國들의 山林資源收奪과 農耕, 牧畜에만 연연하여 山林을 파괴한 결과 旱魃의 계속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樹林이 없는 中東地方은 死活의 紛爭과 戰爭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李朝初期이전에는 山林이 울창하여 旱, 水害를 모르고 풍요속에서 眞善美의 文化追求로 文物의 찬란한 發展을 이루었으나 人口의 급격한 증가로 山林을 황폐시켜 가난과 外侵의 歷史를 안고야 말았다.

山林황폐를 再生시켜 發展한 나라와 山林을 認識하여 잘 다스려 富裕해진 나라를 간추려 보면

獨逸 : 15 ~ 16C경부터 海洋時代가 열리자 인접國의 造船業盛況으로 각 領主들은 한 없이 樹林을 남벌하여 造船材로 팔았으며 牧畜地造成, 農耕地擴張등으로 富強을 꾀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氣象變化를 초래하여 旱魃, 洪水의 大恐怖時代를 겪어 필경 山林과괴를 自省하게 되고 약 200년 간 山林再建歷史 가운데 저 유명한 비스마르크의 鐵拳政治로 山林施策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오늘날 巨蒼한 山林大國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의 성공은 水上交通의 便益까지 이루어 라인강의 奇蹟이라고 일컫는 經濟大國으로 繁榮해 온 것이다.

日本 : 近世에 이르러 급격한 人口增加로 山林이 황폐되었으며 더우기 海洋性氣候圈內에 위치하여 年中 수없이 태풍과 폭우가 몰아닥쳐 山沙太, 洪水, 農作物과괴등을 초래하므로써 가난을 면할 수 없었으나 德川幕府治政이후 山林保護, 育成에 많은 힘을 기울여 온 결과 오늘날 天然災害를 크게 방지함은 물론 아름다운 山林의 나라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國民의 황폐 山林을 再建하는 勤勉性으로 經濟大國을 이루고 있다.

스위스 : 가난에 쪼들리어 젊은 壯丁들이 많이 남의 나라 侵略戰爭에 傭兵으로 품팔이를 하다가 國家가 山林富國을 지향하여 젊은 勞動力을 이에 많이 흡수하자 이들은 祖國山林建設을 聖業으로 봉사하여 山林王國을 이루었으며 木材輸出로 막대한 收入을 올리어 왔음은 물론 人心이 순화롭고 침착하여져서 時計工業등 精密機械工業발전과 근자 化學工業까지 현대 最先進國을 구축하여 富強한 平和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이들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도 山林再建에 성공할 수는 없을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中, 古代에는 전술함과 같이 樹海國家였으며 우리 山林經營인들이 유럽과 日本등지를 두루 다녀보아도 우리의 林木生長度가 그들나라에 뒤지지 않으며, 우리 山이 처참히 황폐되었음에도 綠化에 성공한 점으로 보거나 光陵林, 大關嶺國有松林등의 林木成長値를 보아도 충분함에 남음이 있다.

## 2. 우리나라 山林과 國民經濟

지금 地球上의 林木總蓄積量은 약 3,700 억㎥로서 世界人口 1人當 약 70 ㎥가 된다.

우리나라 林木總蓄積量은 약 1억 7,000 만㎥로서 1ha當 先進國이 100, 150, 200 ㎥이상인데 우리는 平均 26 ㎥, 國民1人當 약 4 ㎥에 불과하며, 人口密度上으로 世界第4位인 우리나라는 年 1.56%의 人口가 증가하여 年1 ㎥強의 蓄積量 증가추세로는 1人當 蓄積量이 쉽게 늘어 갈 수가 없다. 그나마 적실한 有用資源의 蓄積도 못되고 있는 實情이다.

世界人口 1人當 70 ㎥蓄積도 人類가 安息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며 世界的으로 林木資源이 減少一路에 있고, 또 무서운 産業公害의 膨창은 人類生活에 위협을 가증시키고 있으므로 世界의 科學者들은 世界各國이 서둘러 樹林을 育成建設해 나가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山林育成은 초미의 급이며 늦으면 늦을수록 國家發展이 저해된다.

반면 國家가 서둘러 國家重點優先事業으로 劃期的投資(年間 山林廳歲出豫算 1,500~2,000 억 원정도)를 하여 이를 核心的으로 民資가 크게 동원되어 面目一新의 참신한 山林經營을 일으켜 나가면 1ha당 平均 年2 ㎥이상의 蓄積量增加를 기할 수 있으며 山林廳의 長期展望을 크게 앞당기거나 超過達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現在 內需用으로 木材와 펄프 기타 林產物을 年間 약 8억 \$ 정도 도입하고 天然災害 年平均 611 억원, 諸水利事業費가 年間 약 6,000 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國民의 天然災害被害, 부득이한 水利事業으로 水沒되어 간 農耕地의 農產物減收, 湖畔地帶의 氣象被害, 水質汚染등을 經濟價値로 환산한다면 실로 國運을 左右할 무서운 計數가 形成되는 것이다.

여기에 山林建設의 重要性을 逆으로 說明하여 보면 現在 우리의 林木蓄積이 1ha당 26 ㎥이나 이를 100 ㎥ 蓄積으로 假想하여 보면 현재의 木材需給에 國內材 16% 供給뿐만이 아니라 木材의 全量과 펄프 기타 林產物까지도 完全自給할 수 있으며, 水資源貯留確保事業의 縮少, 天然災害를 完壁가까이 막을 수 있으며 國民健康과 體力이 現在보다 월등이 強健하여지고 國民의 思考·슬기가 더욱 깊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說明하면 우리의 現在林木蓄積量 1억 7,000 만㎥가 6억 ㎥정도만 되었더라면 年 4%정도의 林木成長으로 2%정도만 伐採를 하여도 年 1,200 만㎥의 木材가 生産되어 木材·펄프·기타 林產物自給이 充分하며 生態界調和와 山林滲水機能發達로 降水의 直流를 막고 山林地下貯留를 많이시켜 徐出流水시킴으로써 旱, 水害를 크게 막아 莫大한 水利事業展開가 크게 所要되지 않았을 것이며 河床低下로 排水가 잘 되어 洪水저지와 大氣淸淨·樹木의 旺盛한 藥素發散등

으로 罹病率이 낮아져 國民體力이 向上되고 맑은 물의 豊富한 流水, 아름다운 山河의 精氣로 國民의 直感的인 興奮露出이 없는 슬기깊고 명량한 精神力을 갖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水資源確保利用에 있어서 우리의 降水量이 年間 약 1,140억 t 이나 建設部統計資料에 따르면 降水直後 478억 t이 蒸發 또는 地下에 潛水되고 남은 殘量 662억 t 중 '86 약 217억 t 需要計劃 (약 258 t 供給計劃)을 有用하게 쓰고 445억 t을 平常 또는 洪水로 바다에 直流시키고 있으며, 山林土砂流出量을 현재 年間 1ha당 3㎥ 정도로만 推定하더라도 약 1,950만 ㎥가 河川으로 흘러들어 댐을 메워가고 있다고 보아지나 만약 6억 ㎥ 정도의 林木蓄積이었다면 土砂流出量이 1㎥이하로 줄어들어 100억 t 이상의 水資源을 活用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土砂流出量은 山林廳林業試驗場의 局地調查資料에서 推理한 것으로 T/ha 황폐地 117, 成林地 1.6, 稚樹地 9.3, 草生地 0.3, 土砂 1㎥ = 1.8 t 으로 抽出함, 測定地 慶北金陵)

### 3. 林業生産과 經營者의 座右銘

天然林이 自然攝理로 自生하여 樹林帶를 이루어 나왔음을 銘念하여 우리는 우리自然의 生態界에 順應하는 모습으로 林業을 이르게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固有天然林을 育成, 補完하는 姿勢로서 高度의 生産力을 追求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天然林에 있어서는 稚樹林의 경우 經濟的優勢木을 選別하여 이에 置重하는 育林을 해 나가되 雜生木을 完全히 無視하지 말고 育成木에 支障을 주는 나무를 제거 도태하여 나감이 바람직하며

立木이 全般的으로 經濟性이 없고 形質조차 좋지 않아 부득이 更新造林을 해야 할 林地와 生長停止, 退化木, 蘇生 불가능의 病蟲害被害林地 등에 人工造林을 해야 할 林地에 있어서는 一色的單純林으로서의 廣面積造林植栽를 하지 말고 群落식으로 小面積식 여러가지 樹種을 그리고 針葉樹, 闊葉樹를 한 갈피 한 갈피식으로 混淆林效果를 감안하여 植栽해야 生態界의 調和를 이루어 病蟲害를 막고 순탄한 生長과 經營成功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造林에는 天然林이나 人工林을 막론하고 採光, 通風, 濕度유지가 적절해야 하며, 樹冠下를 空白시키지 말고 灌木, 天然下種木 疎生이나 次代木造林으로 複層林을 形成해야 育成林의 生長이 좋으며, 除伐, 間伐의 올바른 間隔조절이 있어야 通直性있는 大經木으로 키울 수 있고, 가지치기가 성실해야 無節上材를 生産할 수 있다. 또 이렇므로서 우리는 山林의 滲水機能發達로 山林貯水力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것이다.

人工造林에 있어서 樹種選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바 林地의 位置, 方向, 風向, 氣溫, 濕度, 等高線등을 감안하여 適地 適樹選擇과 陰, 陽地의 適性을 가려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樹種選擇의 범위가 좁다. 山林廳은 經濟樹種의 다각적인 育種開發을 연구하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市場의 多元的인 樹種, 材質요구와 또 山林經營인들이 보다 高價의 高級木을 生産하자면 經營人 스스로가 이에 영합될 秀型木을 찾아서 林業技術陣의 指導를 받으며 採種養苗로 造林해 나감이 바람직하다. 또 林道가 重要하다. 林道는 經營費의 25%~50%를 절감

시킬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林木價格을 上昇시킨다.

그리고 造林事業에 가장 중요한 것은 適定規模의 經營이다. 面積을 넓게 잡아 힘에 겨워 充實한 經營을 못하는 것보다 小面積이라도 성실하게 힘에 알맞는 事業을 해야 결과적으로 높은 收益을 올릴 수 있다.

造林事業 즉 山林經營은 超長期低所得事業으로 經營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世界各國은 財政補助, 低利融資, 稅制保護 등의 支援惠擇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經營人들도 이의 支援要請을 하고 있어서 國家財政이 許諾되는 대로 支援度가 상승되어 갈 것이며 國家優先重點事業으로 策定되어 가고 있으나 經營人들은 安逸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山林經營은 다른 事業收入에서 無理하지 않는 範圍의 投資로 世襲林業을 기도해야 하며 林業專業일 경우 經營財源을 충실히 充當할 수 있는 收入源이 確保되어야 한다. 이에서 考慮될 수 있는 것은 複合林業이요 本, 副業이 다같이 本業으로 發展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護育成해야 할 것이다.

收入源으로서는 種實수확, 버섯栽培, 觀賞樹生産, 小經材利用加工, 木工藝, 林間畜産, 化工原料, 香料, 野生動物生産, 山藥採取栽培, 벌꿀등을 들 수 있으며 이의 發展은 無限大에 가깝다.

日本の 경우 삼태기 안속 같은데서 병풍과 같은 山에 장기樹를 尙창하게 키우고 下位 部面에서 이러한 갖가지 事業을 이르게 經營者가 充分한 安定을 이루고 있다.

#### 4. 山林과 農村振興

현재 우리나라는 農村經濟落後로 인한 農村人口減少, 老令化로 衰退相을 극해 가고 있으며 反面 都市人口過密集中問題는 社會安定을 阻害하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바 우리는 過密된 都市의 浮動人口를 急速히 疎散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政府는 農漁村活性化對策을 여러 각도로 推進하고 있으나 農漁民의 成功事例칭송만으로는 밝아질 수 없고, 빗만 깊어지게 하여도 農漁民을 苦痛속에 몰아 넣게 된다. 特作農事, 畜産도 限界點에 와 있고, 輕工業의 農村進出을 기대하나 相衝性이 있고 活性化定着에는 歲月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급한 農山村安定活性化對策으로 國家山林經營論을 主唱한다. 國家는 國土의 保全과 資源을 造成하고 農民은 林業就業으로 生計를 해결하며 農山村의 安定된 山林富를 蓄積한다. 國土  $\frac{2}{3}$ 의 山林地産業化는 尙대한 資源을 生産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 自彊經濟에 刮目할 만한 寄與를 할 수 있을 新開地分野로서 우리는 새 山林經濟圈을 形成해나가야 한다.

政府는 신속히 國土全山林에 山林經營大計를 세워 光明있는 先進農村建設을 이뤘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農村이 安定되어 가면 農村出身都市浮動市民의 歸鄉現狀이 일어날 것이다. 끝.

## 全南道支部 總會時 隘路事項聽聞內容

題 目	內 容	備 考
山林開發資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利子率 5.5 %는 너무 비싸다.</li> <li>• 현재와 같은 林業所得이 全無한 狀態에서 5.5 %는 비쌀뿐만 아니라</li> <li>• 과거 일반 銀行貸出金利가 20 % 内外시에도 3 %였던것을 銀行貸出金利가 훨씬 引下된 現時點에서 5.5 %로 오히려 인상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li> <li>○ 先利子 控除制를 廢止하라.</li> <li>• 돈이 없어 融資를 하는 사람에게 더구나 公共機關에서 個人에게 利子を 先控除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li> <li>○ 擔保設定額의 10 %에 해당하는 國債를 買入하도록 함은 무리다.</li> <li>○ 信用貸出限度 200 萬원을 引上하라. 200 萬원 → 500 萬원</li> <li>○ 표고生産資金 融資時 山主의 住居地와 山林所在地와의 行政管轄區域의 차이로 양쪽에서 모두 안되고 있다.</li> </ul>	<p>本會에서 既 建議</p> <p>本會에서 既 建議</p> <p>今後 本會에서 建議 計劃</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밤 收 賣 資 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 수매자금이 時期的으로 낮다.</li> <li>○ 低溫 創庫貯藏에 의한 需給調節로 生産價格 維持를 하여 달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林 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林道施設에 따른 行政節次를 簡素化하여 달라 一새마을 道路와 같이</li> <li>○ 郡費 確保가 어려우니 國庫補助率을  높여 달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施業의自律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造林時에 郡에서 苗木을 山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配定하는 形式을  止揚하고 造林者의 希望樹種을  配定하도록  하여   달라.</li> <li>○ 育林, 間伐등 節次를 簡素化  해  달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育林施業費補助事業量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지치기, 稚樹撫育등 國庫補助 支援率 및 事業量을 擴大하여 山主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衡平의  기회가  되게  해  달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 '86 山林開發資金融資事業內譯 一部變更調整

山林廳은 '86 山林開發資金 融資事業內譯을 再檢討하고 融資需要 增減에 따른 內譯을 일부 變更調整, 承認하였는데 造林, 養苗, 林產事業등을 減額하고 需要가 큰 林道, 副產物 貯藏施設, 林產物 利用加工(石材), 山林副產物 收集등에 增額하였는바 그 事業別 變更內容은 다음과 같다.

( 관련기사 : 본지 3.15 창간호 )

## 事業別 變更 內譯

( 單位 : 百萬원 )

事業別	現 行		變 更		增 △ 減		備 考
	事業費	金 額	事業費	金 額	事業費	金 額	
合 計		3,706		3,706			
資 特 資 金	計		2,500		2,500		
	○ 造 林	865 <sup>ha</sup>	346	467 <sup>ha</sup>	160	△ 398 <sup>ha</sup>	△ 186
	┌ 長 期 樹	365 <sup>"</sup>	108	365 <sup>"</sup>	108		
	└ 其 地	500 <sup>"</sup>	238	102 <sup>"</sup>	52	△ 398 <sup>"</sup>	△ 186
	○ 育 林	8,230 <sup>"</sup>	708	8,230 <sup>"</sup>	708	-	-
	┌ 長 期 樹	6,000 <sup>"</sup>	396	6,000 <sup>"</sup>	396	-	-
	└ 其 地	2,230	312	2,230 <sup>"</sup>	312	-	-
	○ 養 苗 事 業	70 <sup>"</sup>	770	68 <sup>"</sup>	742	△ 2 <sup>ha</sup>	△ 28
	┌ 施 業 費	60 <sup>"</sup>	630	60 <sup>"</sup>	630		
	└ 圃 地 購 入	10 <sup>"</sup>	140	8 <sup>"</sup>	112	△ 2 <sup>"</sup>	△ 28
	○ 豎 立 生 產 施 設	200 <sup>台</sup>	296	200 <sup>台</sup>	296	-	-
	○ 林 道 施 設	6 <sup>km</sup>	80	12 <sup>km</sup>	160	6 <sup>km</sup>	80
	○ 副 產 物 貯 藏 施 設	2,000 <sup>m<sup>2</sup></sup>	300	2,900 <sup>m<sup>2</sup></sup>	434	900 <sup>m<sup>2</sup></sup>	134
計		1,206		1,206			
開 設 基 金							
○ 養 苗 施 業 費	50 <sup>ha</sup>	525	50 <sup>ha</sup>	525	-	-	
○ 豎 立 施 業 費	1,000 <sup>m<sup>2</sup></sup>	50	1,600 <sup>m<sup>2</sup></sup>	80	600 <sup>m<sup>2</sup></sup>	30	
○ 林 產 事 業	11,450 <sup>"</sup>	458	2,500 <sup>"</sup>	100	△ 8,950 <sup>"</sup>	△ 358	
○ 林 產 物 利 用 加 工	2,640 <sup>"</sup>	113	7,500 <sup>"</sup>	321	4,860 <sup>"</sup>	208	石 材 에
○ 山 林 副 產 物 收 集	200 <sup>M/T</sup>	60	600 <sup>M/T</sup>	180	400 <sup>M/T</sup>	120	增 加

全南康津 模範篤林家 金基運(百濟藥品會長)

## 테다소나무大團地造林成功은 林政史에 남을 일

石礫地는 客土까지 하며 造林, 除地없애



김기운 회장

서울 鍾路5가에 자리하고 있는 百濟藥品(株)를 이끄는 김기운 회장은 藥品 도매업으로 연간 300 億원을 매출하는 국내약품 최고의 판매업체이고 근년에는 藥品製造業에도 손을 대어 반월공단내에 草堂藥品(株)를 設立, 국민보건향상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그는 育英事業에도 뜻을 두어 全南 무안에 草堂學園 百濟女子 商業高等學校를 設立하고 女性教育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요즘에는 초당약품의 핸드블팀이 創團된지가 日淺함에도 불구하고 全國을 연속 재패하고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神話를 創造하는 이

가 바로 숨은 模範篤林家 金基運 會長이다.

그는 일찌기 남이 돌보려 하지 않는 황폐된 山林을 보고 國土가 폐허되는 안타까운 충정에서 처음으로 全南 康津에 황폐 林野를 마련하고 客土까지 하면서 造林을 始作하였다고 한다.

워낙 황폐가 심하고 石礫地가 50ha나 되어 처음 造林을 할 때에는 客土까지 하고 나무를 심느라 1인1일 20분 심기가 어려운 때가 많았고 한번 실패하면 두번, 두번 실패하면 세번, 세번째서야 비로소 成功한 개소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대한 陰, 陽樹等 特性이나 技術的인 面을 잘 모르는 상태하에서, 또 당시에는 山林當局의 技術指導체제도 잘 確立되지 않은 상태라서 올바른 기술지도도 받지 못한 채 自身의 失敗가 산 敎訓이 되어 줌으로서 執念만으로 20年을 刻苦끝에 마침내 오늘의 한단지 750ha가 完全 造林成功地로 이룩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지난 80年에는 5.16 民族賞까지 受賞한 模範篤林家이다.

育英事業으로 人材를 養成하는 것도 材木을 키운다고 하거니와 먼 훗날의 실제 材木을 키우는 山林에의 投資는 育英事業과도 같은 脈略이라는 것은 쉽게 理解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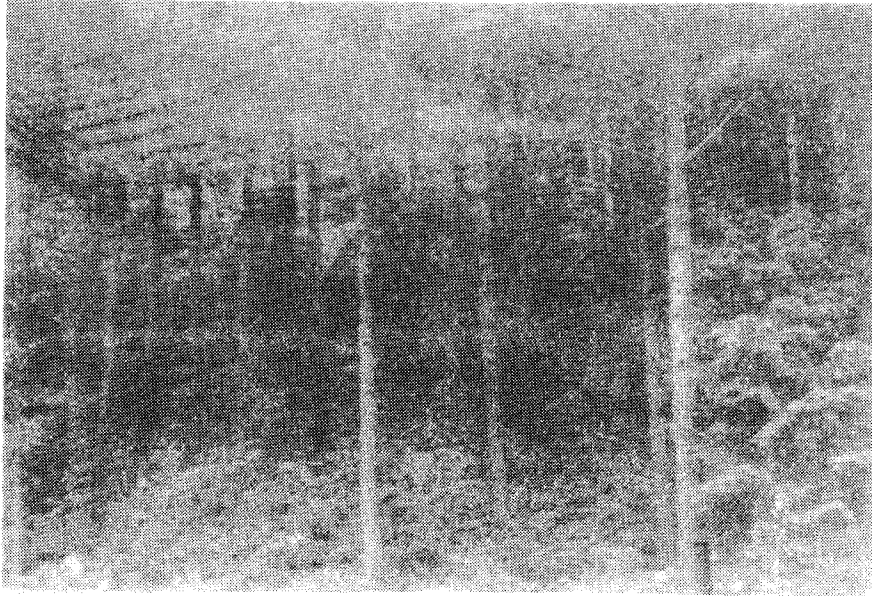
理財에도 남달리 밝아 오늘의 百濟그룹을 이끌어온 그가 만일 目前에 利益만을 追求하였다면 오늘의 百濟女商 設立과 山林에 投資는 절대 하지 않았으련만 確固한 國家觀과 哲學이 있었음은 現場을 둘러본 사람이라면 쉽게 立證이 될 수 있다.

한團地 750ha라는 大規模도 놀랍거니와 그 큰 規模에 어느 구석하나 단 한평 정도의 빈땅이 없이 完全 植栽되었으며 石礫地에도 除地가 전연 없으니 客土에 의한 造林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南端에서만 生育이 可能한 점을 일찌기 着眼, 美國에서 테다(Teada) 소나무 種子를 이미 20餘年前에 輸入하여 自家養苗로서 造林을 한것이 오늘날 20여년생 가까운 테다 소나무 145ha의 大規模 造林地가 完全 成功되었고 가지치기등 撫育施業이 이와 같이 잘되어 있는 곳은



필자가 처음 보는 일로 경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는 우리나라 테다 소나무의 大團地 造林成功 地의 嚆矢로서 林政史에도 길이 남을 일이며 金會長이 시도하고 있는 하면 된다는 의지의 결정임을 보여주는 示範林이 될 것을 確信한다.



가지치기 등  
육림사업이  
잘 된  
테다 소나무  
조림지

그 이외에도 리기다 소나무 87 ha, 리기테다 20 ha, 삼나무 104 ha, 편백 298 ha, 海松 96 ha 등 總 750 ha에 대하여 완전 經濟林으로 造林을 完了하여 이제 II 令級의 林分이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매년 育林施業을 게을리 하지 않고 풀베기, 施肥, 가지치기 등 持續的인 育林施業費의 投資와 努力의 결정이며 向後 30年後 50年을 伐期令으로 한 ha當 300 m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造林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1원의 林業所得이 없는 상대하에서 現在 常備 職員數만도 15名에 이르니 그간의 總投資가 얼마였겠는가 상상하기도 어렵다.

山元 住民들에게는 대부분의 他山林 所有者들이 그러하듯이 각종 林產 副產物 이외에도 施業에 따른 勞賃撤布 效果는 물론, 25 km에 달하는 林道는 山元住民들의 通行路와 農路로도 利用되어 地域發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林道密度는 ha當 33.3 m나 되어 우리나라 全體 平均 0.07 m에 비교할 바 아니고 光陵의 試驗林 12.8 m/ha에 비교하여도 越等한 편이다.

일찌기 山林裝備面에서도 重裝備와 日産보다 性能이 優秀한 山林用 사다리를 自體開發, 普及하는 등 그 외에도 植穴機, 下刈機, 機械톱등 林業機械化에 先驅의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단순한 틀에 박힌 山林施業만 하는 것이 아니라 海松과 테다 소나무의 開花期가 비슷한 점을 착안, 두 樹種간에 交雜種子를 誘導하여 試驗造林을 하기 위한 別途의 自體採種林을 가꾸어 가고 있는 등 研究性있는 施業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本來 人品이 溫和하고 자상한 金회장은 흔히 돈 많은 山主가 그러하듯, 현장 責任者에게만 내맡기고 산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山主가 아니고 한달이면 지금도 꼭 한두차례씩 현장을 直接 둘러보

며, 휴대용 가지치기 톱과 전정가위를 휴대하면서 한나무 한나무를 관찰하면서 정리를 한다. 우리를 안내할 때에도 造林談을 하면서 철새없이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은 결코 과장이나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 아닌, 眞實된 면을 엿볼수 있었으며 그가 얼마나 산과 나무에 대한 애착이 큰가는 百濟女商高를 訪問하였을때 본 設立趣旨文 서두에서 “산은 푸르고 싱싱한 나무를 가꾸듯……”하였고 校歌의 歌詞 첫 머리에도 “승달산 ……”云云하였으며 學校 주변을 각종 나무로 보기 드물게 울창하고 美麗하게 가꾼점만 보더라도 그의 면모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가 있었다.

山元部落 住民들과도 자주 접촉하므로써 部落의 여러 어려운 事情을 잘 理解하게 되고 그렇게 하므로써 林道以外에도 山元 住民들의 農路 6km와 교량을 建設하여 주고 部落의 電化事業과 ئم프시설을 하여 주는등 山元 住民들과 互惠精神을 發揮함으로써 인근 住民들의 존경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는 山林經營의 요체가 地域山元 住民들의 유대에서 부터 잘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直接 잘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끝으로 필자의 글솜씨가 무디어 眞正한 金會長의 면모를 잘 表現치 못한 점과, 남의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性品으로 本誌에 記事化 하는 것조차 만류한 것을 本誌에 실린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최)

【山林廳人事】 기술직 5급 (農林技佐) 전보 86.7.31 字

農林技佐	박 주 하	임정국	이용과 이용(2)	農林技佐	문 경 호	중부영림서	홍천관리소장
	김 용 환	"	보호과 보호(2)		김 병 윤	"	원주관리소장
	조 연 환	"	방제		고 광 남	동부영림서	강릉관리소장
	김 기 철	조림국	조림과 조림(1)		류 기 오	"	평창관리소장
	서 승 진	"	" 조림(2)		최 병 용	"	정선관리소장
	이 경 한	"	" 종묘		구 극 환	"	삼척관리소장
	홍 운 표	"	치산과 사방		김 옥 등	남부영림서	사업과장
	박 헌 훈	"	" 보전		장 현	"	영주관리소장
	안 승 환	영림국	경영계획과 종합		이 명 식	"	영덕관리소장
	조 기 원	"	" 경영		민 재 홍	"	남원관리소장
	이 백 근	임업시험장	검사과		김 영 택	임업연수원	파견 (교관요원)
	최 영 오	중부영림서	사업과장		김 영 길	"	"
	박 대 련	"	춘천관리소장		이 건 상	산림청	근무
	안 병 훈	"	인제관리소장		류 장 혁	"	"

## 江原地方造林은 天然下種更新으로

### — 母樹林作業 對象地가 많다 —

本會 理事(江原) 洪 東 善

造林, 更新方法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다. 이곳에서 그 理論的인 方法을 說明하고자 함은 물론 아니다. 그 地域特性과 地形, 土性, 經濟性등을 考慮하여 樹種을 選擇하고 更新方法을 決定하여야 함은 너무 基礎的이고 당연한 것이다.

江原地方과 慶北一部 地域의 경우, 우리나라 針葉樹中 代表的인 剛松이 다른 어느 樹種보다도 잘 자라고 材質이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過去의 造林方式이 너무 劃一的으로 階伐을 하고 낙엽송등 다른 用材樹로 人工造林을 한 곳이 적지 않다.

人工造林이 비교적 定着되고 正常的으로 施行되어 왔다고 보아지는 60年代 後半에 植栽된 人工造林地는 이제 拾數年부터 이십여년 이상이 된 二令級 林相이 되었는데 그 造林地를 둘러보면 人工植栽한 낙엽송은 天然稚樹로 生長한 剛松으로 被壓되어 極히 不良한 상태로 있는 현상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성공 임지도 많지만)

당초 人工植栽를 할 당시에는 地拵作業을 하였을 것이고 剛松 稚樹는 發生하지 않았거나 發生하였더라도 극히 미미한 상태였기에 낙엽송을 植栽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天然下種更新 方法의 優秀性은 教科書에서 배운 그대로 立證되었다고 보아지며 필자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의 많은 造林人들이 經驗을 하여온 것이고 이와같은 事例는 國有林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아진다.

그동안 造林費와 人力이 얼마나 낭비 되었는지를 生覺할 수록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는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世代가 직접 體驗한 값진 敎訓인데 문제는 이러한 敎訓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過去와 같은 試行錯誤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거든 아직도 一部 一線에서는 같은 方法을 답습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근년에 山林廳에서는 剛松을 장려수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天然林 保育事業도 이러한 脈略에서 積極 支援하고 있는줄 알고 있어 늦게나마 다행하기는 하나 아직도 일부 郡에서는 營林計劃上에 階伐로 되어 있음을 理由로 人工造林方法이 最上인양, 試行錯誤를 되풀이 하려 함은 정말로 안타까운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설령 營林計劃上에는 階伐로 되어 있더라도 技術者의 眞正한 良心과 判斷이 母樹作業이 可能한 林地라고 生覺되는 林地라면 營林計劃이야 당연히 變更하여야 되고, 絶對的이 아닌 營林計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生覺된다.

**林業界 消息**

○ 韓國林學會 定期總會 ; 韓國林學會 (會長 權五福 江原大 教授)는 8.8~

9양일간에 걸쳐 江原大 林科大學에서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特別講演과 學術 研究 發表會를 가진 다음 태기산 봉평협업체, 오대산 월정사 등 林業視察을 하였다. 特別講演 會는 서울農大 朴泰植 博士의 “山林廳移管과 山林行政發展”, 江原大 尹鍾和 博士의 “山地草 地造成의 實態”였다.

○ 山林廳, 私有林協業經營事業視察을 위한 關係職員派獨

山林廳은 私有林協業經營事業의 效果的인 推進을 위하여 本廳 이장호 계장과 강원도청 육림계 장 권순호, 경기도청 육림계장 이성섭, 전북도청 육림계장 김형록등 4 명과 私有林協業指導所 長, 忠北 박우규, 충남 김용기, 전남 백승호, 경북 차영조등 모두 8 명을 8/2 ~ 8/15 까지 視 察토록 派獨하였다.

○ 本會 慶北支部 夏季團合大會 ; 本會 慶北支部會員 30 여명은 지난 7.26 모임을 갖고 協 會운영에 활력을 기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불영사계곡, 망양해수욕장, 백암온천 등 동해안 명소를 둘러보는 團合大會를 갖었다.

○ '86 山林廳職員 創案採擇件數 5 件 ;

山林廳은 政府公務員 創案制度實施에 따른 '86 自體提案件數는 모두 14 件으로 이중 審査結果 5 件이 優秀提案으로 採擇되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採擇內譯

所 屬 職 姓 名	提 案 件 名	創案等級	副 賞 金	人 事 上 特 典	總 務 處 推 薦
營林課 農林技佐 朴東奎	苗圃中耕除草機	特別賞	50 만원	특별승급	추 薦
林木育種研究所 林業研究士 정현관	동위호소분석실험기구 개발	優秀賞	30 "	"	"
中部營林署 原州管理所 農林技士 심윤섭	조림사업용묘목포장 및 포대제작	優良賞	10 "	-	-
中部營林署 原州管理所 農林技佐 이경한	산림사업용 페인트 소요량의 절약방안	"	10 "	-	-
東部營林署 三陟管理所 農林技員 정현구	인력절감형 만경류 제거작업 도구	"	10 "	-	-